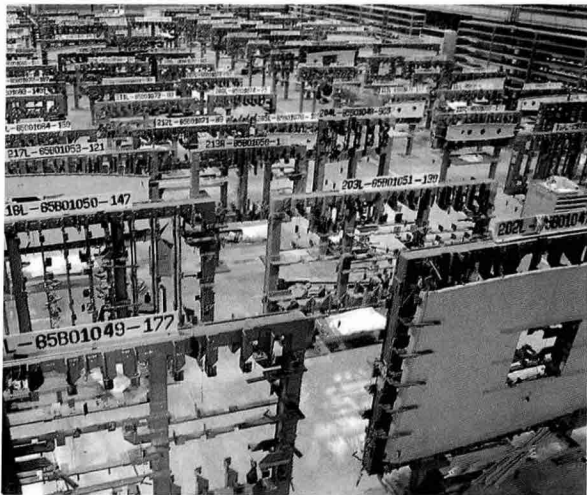


대우중공업



지난 3월 군용기 부품 수출시대를 연 Hawk기. 축소 모형으로 전시된다

A-320 낫셀등 24개 품목 선보여...



▲ 현재 1백 40대분의 주의를 인도한 B747 工程 모습

국내 항공사상 최초로 국내에서 제작된 군용훈련기 낫셀을 수출하여 군용기부품 수출시대를 연 대우중공업은 이번 전시회에 실물 7개 품목 및 13개 모델과 4개의 엔진을 축소모형으로 전시한다.

實物전시에는 낫셀(엔진 역추진장치) 후반부인 Thrust Reverser와 동력전달장치인 Rotor Hub등과 정찰용 무인항공기(RPV)가 돋보이며, 모형으로는 Hawk Mk67과 Dornier 328, 한국해역의 초계를 담당할 P-3C Orion기 및 5기종의 헬기가 선보인다.

이번 전시에서 국산 군용훈련기(참조: 本誌 92/4월호 p.9)는 제외되었다. (泰)

輕 전투헬기사업 수주 경쟁이 치열한 유로콥터社(佛·獨)의 Bo-105(사진 왼쪽)와 아구스타社(伊)의 A-109(▼)도 모형으로 전시된다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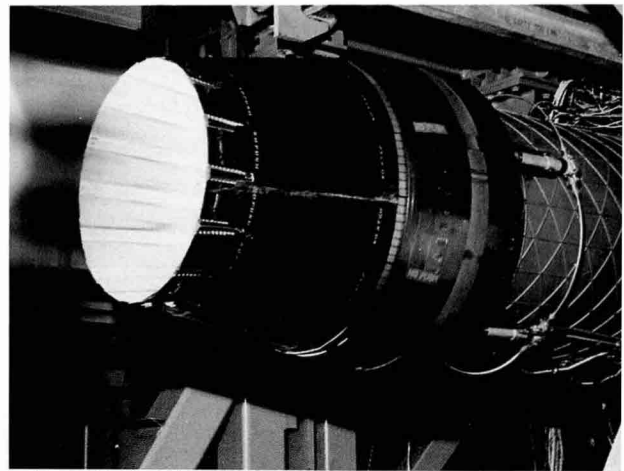
삼성항공

한국 전투기사업(KFP)기종인 F-16은 3개의 움직이는 모형(1/10)으로 전시된다

F-16 등 19개 품목 시·청각 입체전시

한국 전투기사업(KFP)의 주계약업체인 삼성항공은 입체적 전시와 함께 각종 전시물을 시각과 청각에 호소하도록 구성하였다.

KFP 사업기종인 F-16기의 경우 3개의 축소모형을 공중에 삼각체로 움직이게 하여 시선을 유도하며, F-16의 최종조립 공정을 램프와 아나운서 멘트(시간당 1회)를 통해 알려 준다. 또한 「멀티 큐브 슬라이드」의 4개 돌출 화면을 통해 MiG기 격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영하여 음향효과를 도모하도록 하였다. 엔진등은 완성품 위주로 전시된다. (泰)



▲ F-16용 엔진인 P & W사의 F100-PW-229

▼ 보잉 757 APU 도아(보조동력장치 개폐문)



▼ 80% 국산화를 실현한 Bell 412. 실제기 및 모형으로 전시된다

